

어른의 마음, 엄마의 마음



40대 한 여인이 울면서 말했다. “외국에서 살다가 돌아 온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생겨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급우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‘왕따’였습니다. 우리 애도 그 아이와 친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왕따가 됐지요.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애가 왕따가 됐다는 사실에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. 고민 끝에 그 아이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.”

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. 그 여인은 “왕따도 감싸 안아야한다고 배웠고 그게 어른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질 못했어요. 오로지 이기적인 엄마의 마음만 앞선 것이 창피하고 괴롭습니다”

이 여인의 진솔한 토로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. 지난달 말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이 서울도서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‘내 인생으로의 출근-퇴근길 인문학’ 행사에서였다. 이 여인은 ‘무릎 꿇게 하는 현실에서 나를 지키는 치유이야기’란 주제로 강사로 나선 정혜신 신경과 전문의와 이명수 심리기획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눈물로 고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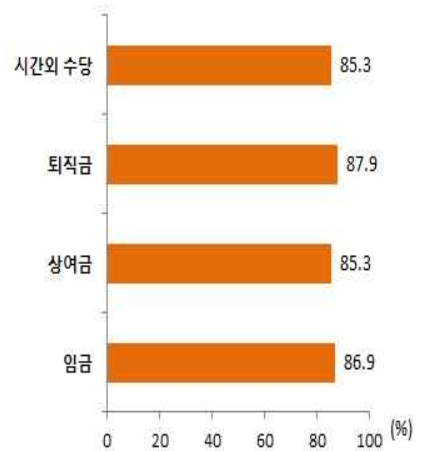
이 여인을 힘들게 한 어른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.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. 어른의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장(家長)의 마음과 청년의 마음, 사장의 마음과 노조의 마음 등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펼친다.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.

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의 정규화다.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코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. 종합편성TV와 케이블TV 등 수많은 방송사가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다. 비정규직이라도 다 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다. 근무 일수대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도 부지기수다. 휴일인 달력의 빨간 날은

이용택 백상경제연구원장
ytlee@sedaily.com

□ 방송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차별적 대우

- ◆ 방송사 비정규직 설문참여자의 85% 이상은 임금, 상여금, 퇴직금, 시간외 수당에서 정규직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



자료: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(2011)

근무일수에서 빠진다. 임금도 최저임금수준이다. 임금으로만 따지면 한마디로 '열정페이'다.

여기까지만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은 당연해 보인다. 하지만 방송사 사정도 녹록치않다. 적자가 쌓여 제 때 임금을 주기도 힘겹다. 이를 맞추기 위해 외주사에 지급할 제작비를 늦추는 경우도 다반사다. 외주사의 경영난은 남의 문제일 뿐이다.

추가근무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. 직원들에게 월 평균 400만~500만원을 주면서 본인은 300만원만 가져가는 한 중소기업체 사장을 잘 안다. 오래된 지인이다. 그는 일감이 몰려 직원들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할 때 추가 근무수당을 주는데도 직원들의 눈치를 살핀다.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을 선호하는 탓이다. 비수기 때에는 근무시간에도 놀 때가 많은데 일감이 몰려 추가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직원들을 보면 마냥 서운하기만 하다고 야속해 한다. 그럴 때마다 자신이 얼마를 가져가는 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란다. 그는 직원들이 쉬어도 수시로 월화수목금금금 일한다. 올해는 여름휴가도 못갔다.

청년취업과 정년연장 문제로 부각된 임금피크제 역시 제도의 취지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정의 마음으로 돌아서면 생각이 달라진다. 언제 회사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줄어들면 취직하지 못하고 놓고 있는 켩거루족 자식과 병원을 들락거리는 노부모 봉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. 청년고용 확대와 정년연장에 따른 고비용 구조에 대한 경영진 측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외면하고 싶어진다. 이런 것들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경제의 현실이다.

그런데도 이를 하나로 모아야할 정치권은 가관이다. 안보문제까지 진영논리로 어지럽다. '머리 따로, 입 따로'다.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하품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인 듯 싶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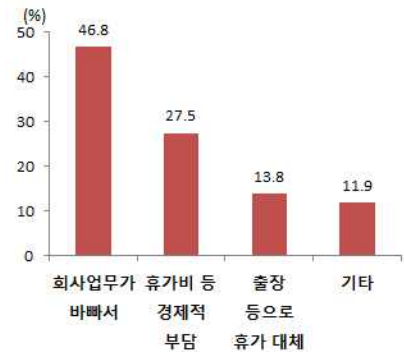
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비슷하다. 나눠야할 파이가 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다. 이를 헤쳐 나가는 길은 경영자든, 직원이든, 정치인이든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.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른의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타협을 이뤄내는 게 절박하다. 상생도 그래야만 가능하다.

□ 중소기업 CEO의 여름휴가

- ◆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 200명 중 54.5%는 여름휴가 계획 못 짤



- ◆ 휴가계획을 못 짤 가장 큰 이유는 '회사업무가 바빠서'

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, 중소기업 애로실태 보고서 (2016)